

외식업 중앙회 전북자치도지회, 김동기 감사 선출

사)한국외식업중앙회는 최근 롯데호텔 잠실점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개최된 제60차 정기총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소속인 김동기씨가 감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지회에서 처음으로 김동기씨가 감사로 선출된 배경으로는 중앙회 부회장 김태정 지회장의 적극적인 권유로 배출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외식업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고, 노고를 인정받은 결과로 보며, 김동기씨는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를 통해 중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에 선출된 김동기씨는 "중앙회 감사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며 "전북특별자치도지회 소속 회원의 위상을 높이고 중앙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도동동, 서남환경과 방역소독 지원 협약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와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대표 서덕교)은 주거환경 취약가구의 방역소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식에는 도동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와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 대표가 참석하여, 관내 주거환경 취약계층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하여 취약한 주거환경으로 인하여 집 내외부로 해충 등이 발생하는 가구에 방역소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 (유)서남환경은 지난 2024년에도 도동동 관내 주거환경이 취약한 15가구에 재능나눔을 통해 방역소독을 지원하기도 했다.

서덕교 대표는 "도동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소선자 도동동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방역소독 지원을 통해 재능 나눔을 해주시는 (유)서남환경 대표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여성새일센터, 노인돌봄전문가 과정 개강

남원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평생학습관에서 12일, 올해 마지막 직업교육훈련 "맞춤형 노인돌봄전문가" 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과정은 오는 7월 15일까지 총 46일간(184시간) 운영되며, 급증하는 고령화 인구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들의 증가에 따라 해당 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구인·구직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실무와 현장견학, 직무 소양교육, 인지활동지도사 자격 과정 및 현장실습으로 구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063-620-5280~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송동면, 밀반찬 지원·안부 확인... 소통행정

남원시 송동면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관내 독거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직접 반찬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1일 1가구 소통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은 송동면 거주자로 거동이 불편해 제때 끼니를 챙겨 드시기 힘든 어르신 30세대(연간 600세대)에게 맛있는 반찬을 가져다드리는 "행복 밥상" 지원을 진행,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밀반찬 전달 및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 사항이나 건강 상태 등을 세심히 살펴며 지역사회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 6명 발표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15일 개막식서 시상

전북특별자치도는 청소년들의 모범적인 삶을 격려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에 따라 매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은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은 △효행 △선행 △면학 △예체능 △재능 △국제화, △장애 등 6개 부문을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추천대상자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18명이 접수됐으며, 5월 2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분야별 1명을 최종 선발했다.

제12회 전북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6개



효행 김은솔



선행 김가은



면학 김재현



예체능 최은지



국제 화고성민



장애 임성택

부문 수상자는 △효행 김은솔(국립군산대학교), △선행 김가은(배영고등학교), △면학 김재현(전북공업고등학교), △예체능 최은지(왕산여자고등학교), △국제화 화고성민(국립군산대학교) △장애 임성택(양현고등학교)이다.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각자의 나는 청소년들의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5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2회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박람회' 개막식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01만호 기자



무주군 박천우·문사염 부부, 새농민상 수상

무주군 적상면 이동마을의 박천우·문사염 부부가 (사)한국새농민중앙회로부터 5월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도 농업인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지역농협의 추천을 받아 중앙본부에서 최종 선정, 시상한다.

이들 부부는 만덫물 사과 등 무주 특산물 생산과 기술을 보급에 앞장서며 무주농업 발전은 물론, 작목반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박천우·문사염 부부는 새농민 본상 후보에 올랐으며 부부 동반 해외연수 혜택도 누리게 됐다.

한편 박천우 씨는 2023년부터 무주군농업경영인회 회장으로도 활동하며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업 발전에 힘쓰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삼양그룹 수당재단, 순창군에 장학금 3000만원 지원

삼양그룹의 장학재단인 수당재단(이사장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지난 9일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30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3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수당재단은 삼양그룹 창업주 故 김연수 회장이 자녀들과 함께 1988년에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이번 장학금 전달은 각 고등학교의 추천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 성과와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당재단이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정읍교육지원청, 지역과 함께하는 역사교육

정읍교육지원청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 10~11일 2025 지역과 함께하는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정읍 지역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학부모, 시·도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기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동학농민혁명기념 1894 건기 함박단 찾아가는 동학농민혁명 역사기록 박물관 △학생자치·청소년 문화예술(춤, 악단) 진지 등이 진행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경진안군민회 체육대회, 고향사랑 기부행렬 이어져

진안군 출향인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 참여하며 고향 진안에 대한 깊은 애정을 실천하고 있다.

군은 지난 10일 서울에서 열린 '제14회 재경진안군민회 읍·면 대항 체육대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용진 재경진안군민회 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500만 원을 기탁했으며, 재경마량면향우회 손정기 사무국장이 200만 원, 김진술 부회장이 1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기부자들은 "오랜만에 출향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날, 고향 진안의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싶어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2025년 전북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화합 속 성료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최근 전주전대대학교 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13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대한건축사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이상열)와 전주시 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공동 주최했으며, 전북개발공사와 도내 14개 시군 및 건축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도내 건축사, 기술사, 관련 실무자와 가족 등 600여 명이 참석해 화창한 5월의 날씨 속에서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전북자치도·전북개발공사·시군 연합팀(A팀), 전주·완주 연합팀(B팀), 건축사회팀(C팀)으로 나누어 축구, 줄다리기, 계주 등의 단체경기와 가족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했다. 경기 내내 열띤 응원과 환호가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웃음과 땀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건축인들은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도내 건축인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새로운 교류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건축은 도시의 얼굴이며,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라며, "오늘 체육대회를 계기로 전북 건축인 여러분이 한층 더 결속하여, 도민을 위한 더 나은 건축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건축인의 권익 증진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이번 체육대회가 도내 건축계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1만호 기자

김제농협, '농협 두류 전국 협의회' 발기인대회 개최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최근 김제사에서 "농협 두류 전국 협의회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이정용 조합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하며 두류 산업에 대한 전국 협력체계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주요 두류(콩) 생산농협 관계자들이 모여 협회의 규약 제정, 조직 구성, 정책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향후 농가 소득 안정과 두류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공동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논활용 직불제와 전략 작물직불제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두류는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영양학적 가치뿐 아니라 논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체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두류 소비량은 약 37만 톤으로 추정되며, 그 중 약 80%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 국산 두류 생산 확대와 품질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제농협은 이러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24년산 두류 정부비축 수매 물량으로 6,730톤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전국 최대 수준에 해당한다.



이러한 실적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이번 협의회를 주도하게 되었으며, 전국 농협 간 협력 기반 구축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의회 조직에는 전남 옥과농협 구정훈 조합장과 충남 원북농협 장원호 조합장이 부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사무국장에는 전북 부안중앙농협 신정식 조합장이, 감사에는 강원 한반도농협 신승문 조합장과 전북 진흥농협 임영택 조합장이 각각 맡게 되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세정과, 고추 농가 일손 돕기 봉사활동 전개

김제시(시장 정성주) 세정과는 지난 8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에 나섰다

이날 세정과 직원들은 고추 농가를 방문해 미숙한 손길이 지남 고추 모종 심기, 지대 설치 작업 등 농가 일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봉사활동은 고추 재배 농가의 중요한 계절인 모종 심기 작업을 돕기 위해 진행됐으며,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령의 농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움을 받은 농가주는 "모종 심기 작업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인데 직원분들이 직접 도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는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농촌일손 돕기에 적극 협조하고, 지역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